



## 김민석 국무총리, 육군 제9보병사단 방문

- 전방 육군 경계작전부대 군사대비태세 점검 및 장병 격려

□ 김민석 국무총리는 한 해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(수), 육군 제9보병사단 예하 전방부대인 제30보병여단 6중대(만우리 중대, 경기도 파주시)를 방문했다.

\* (참석) 국방부 차관, 육군 제9보병사단장, 국무총리 비서실장, 국정운영실장 등

○ 이번 방문은 총리 취임 후 첫 전방부대 방문으로, 국가 안보수호를 위한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, 국방의 의무를 다하며 헌신하는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.

○ 육군 제9보병사단은 6.25 전쟁 당시 성공적으로 백마고지 전투를 수행한 별칭 ‘백마부대’로서, 평시 임진강 및 한강에 대한 경계작전을 수행하는 강안 경계작전 부대이다.

□ 김 총리는 만우리 중대 관측소 및 상황실에서 작전 현황에 대해 보고 받고, 장병들이 경계작전을 수행하는 철책과 소초를 둘러보며 장병들을 격려했다.

○ 특히, 임진강과 한강을 포함하여 강안을 경계하는 어려움 속에서도, 월북 시도자를 조기에 식별하여 차단하고, 전복된 민간 어선을 식별하여 어로민을 안전하게 구조하는 등 완벽한 작전을 수행해 준 부대 장병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.

□ 또한, 김 총리는 “추운 날씨속에서도 안보를 지키는 최전선에서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일상을 영위할 수 있다”라며 국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격려했다.

- 끝으로, 김 총리는 장병들이 든든하게 전방을 지키고 있으니 여러분을 믿고 더욱 열심히 일해서 우리나라를 더 반듯하게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면서,
- “건강하게 군생활 잘하고, 여기 있는 동안에 나라를 위한 뜻과 사회에 돌아가서 일하는 꿈도 많이 키우기를 바란다”면서 국민 여러분을 대신해서 연말연시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	책임자	과 장 박영철 (044-200-2123)
		담당자	중 령 정지연 (044-200-2126)

